

무한상상 '전주 놀이터', 도시의 미래 키운다

창의 예술교육 전개, 창의성 겸비 인재 육성

민선7기 이후 전주시는 아동이 행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침을 굶는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은 전주 대표 아동친화 정책이다. 시는 또 한 다양한 분야의 창의 예술교육을 활발히 전개,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여 도시의 미래를 키우고 있다. △야호 숲놀이터 확대 △야호 책놀이터 조성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확대 △야호 부모교육 운영 등으로 구성된 전주형 아동·청소년 창의 교육 정책인 '야호 5대 놀이터'를 살펴보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예술인 및 전주시민들은 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예술교육 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꿈꾸는 예술터를 둘러보고 있다.

▲초록으로 놀자, '야호 숲 놀이터'

전주시는 어린이들이 복잡한 도심속을 벗어나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하고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색 놀이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가 접근성이 좋고 산림환경이 우수한 도심공원과 숲에 나무미끄럼틀, 나무그네, 흔들다리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만든 '야호 숲 놀이터'가 인기다.

야호 숲 놀이터는 지난해 완산철봉 '신기방기 도깨비숲'을 비롯해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 '맘껏 숲'과 실내복합공간인 '맘껏 하우스'가 완공되면 자연놀이 체험공간이 도심 곳곳에 확대될 전망이다.

▲책 속으로 풍덩, '야호 책 놀이터'

전주에서 책은 놀이다. 시는 열람실 이용에 중점을 둔 도서관을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며 노는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우선 평화도서관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책 놀이터로 변신하며

야호도서관도 놀이 공간과 휴식공간을 갖춘 신개념 책 놀이터로 바뀔다. 책 놀이터는 올해 평화·효자·삼천시립 도서관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1개 전 도서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또한 작은도서관(공립 28, 사립 79)의 독서활동, 문화 활동, 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거점화를 실현중이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집 앞 작은도서관을 친근한 공간으로 여기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동과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인 중화산도서관을 건립중이며, 덕진구청동에 가족통용공간과 트윈세

시, 야호 숲·책 놀이터·예술 놀이터 학교·부모교육 등 '5대 놀이터' 조성 김 시장 "함께 성장하는 도시 꼭 만들 것"

대 미디어공간을 갖춘 혁신 도시 복합 문화센터도 건립 추진 중이다.

▲꿈꾸는 대로, '야호 예술 놀이터' 시는 아이들에게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놀이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예술 놀이터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놀이터가 된다. 시는 노송광장 팝업놀이터를 교육위주의 놀이형태에서 탈피해 규칙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아동 주도 놀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가 미래주요인 어린이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에너지 체험 놀이와 휴식 기능을 갖춘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일상 생활공간에서 놀이와 체육활동을 하면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야호 에너지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팔복예술공간 2단계에 예술교육·융합공간, 전시공간, 어린이놀이책방 등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퍼포먼스 예술놀이터도 조성됐다. '야호! 아이 조아 예술학교'를 통해 어린이가 학교 인근 마을 예술가와 청년작가 등과 함께 예술작품을 제작해 학교와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교 주변 마을 등에 전시함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계획이다.

▲상상력 폭발 '야호학교' 확대

전주시가 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배움터 '야호학교'는 전주형 창의학교로 자리매김했다. 야호학교는 12주 과정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수업자의 2기 재 참여율이 90%에 달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희망 활동을 기획하는 야호학교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는 매년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매월 운영되는 야호 아카데미,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집단토의, 1박2일 캠프, 전주 스마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특히 학교자율 동아리, 자유학기제, 학기말프로젝트 등 학교와 지역연계 특화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아이와 눈 맞추는 '야호 부모교육'

시는 매년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 내 문제 예방을 위해 매년 전주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시립도서관 등과 기관별로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비부모, 초보부모,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을 진행 한다.

또한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육아를 돕고 부모와 유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와 6~48개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이 든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책 놀이 활동도 진행한다. 또 엄마들을 위한 동화 들려주기, 다양한 육아정보 교환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집 앞 공원, 도서관 등 도심 곳곳에 아이들의 상상과 꿈이 담긴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배우는 도시, 책과 문화·예술이 놀이가 돼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예술교육도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놀이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이윤자 의원 전주시원시니어클럽 공로패

전주시의회 이윤자 의원(비례대표)이 5일 블레스웨딩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단 공익형 최종평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원시니어클럽(관장 우림)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의원은 전주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 생산적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사회적 가치도 큰 사회공헌사업으로 노인복지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청주동물원 사자 대상 협력진료

전주동물원(원장 조동주)과 청주동물원은 5일 청주동물원 사자에 대한 상호 협력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협력진료는 전주동물원이 지난해 5월 청주·광주·대구동물원과 야생동물 사육과 진료, 교육, 홍보전 분야 발전을 위해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의 후속조치로, 청주동물원 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육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동물원의 건강검진에 이용되고 있는 위내시경 시술을 청주동물원의 사자에 실시함으로써 위염 등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전주동물원은 지난 6월 전주동물원 사자의 자궁질환이 의심돼 청주동물원과 함께 복강경 시술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전주동물원에는 현재 103종 630여 마리의 동물이 생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행복한 코스타리카, 사회적경제로부터'

전주시, 까렌 니노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초청 '사회혁신 아카데미' 개최

사회적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전주시가 북중미 코스타리카의 행복원천으로 손꼽히는 사회적경제 우수모델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5일 전주 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중간지원 조직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코스타리카의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회혁신 아카데미에는 한국·코스타리카 의원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까렌 니노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강사로 초청돼 '코스타리카의 우수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을 주제로 코스타리카의 우수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분야를 전주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과 청중에게 쉽게 사회경제를 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5일 전주 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제7차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가 열린 가운데 까렌 니노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까렌 니노 위원장은 라틴대학 법학과 고급학사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코스타리카와 한국 의원간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다. 까렌 니노 위원장은 4박 5일간의 방문 일정 중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육성중인 전주를 방문지로 선택했다.

시는 향후에도 청년·시니어·디지털·시민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혁신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선진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 안전하고 따뜻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업)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부터 취약계층 등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덕진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적극 추진 △한발 앞선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 정착 △환경미화청행정 강화를 중심으로 한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발 앞선 현장밀착형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대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폭설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 상황을 즉각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구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기 35대와 교반기 2대, 염수저장탱크 9대 등의 장비를 보수·구입했으며, 역·구간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경험로와 동부대로를 비롯한 경사로 등의 제설취약 지역을 선점해 신속한 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구는 또 보도구간 초동제설,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급경사 보행로를 정비해 주민들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 '엄마의 밥상' 성금 전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주 지역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아침밥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최종래)은 5일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최종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이다.



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따뜻한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왼쪽)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 현재까지 총 8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물품 후원 등 지역사회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완주군 고산 체육공원에서 '2019 의무경찰 만사형통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활기찬 복무환경 조성 위해

전북경찰청, 의무경찰 만사형통 한마음 체육대회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완주군 고산 체육공원에서 경찰관과 의경, 협력단체장 등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의무경찰 만사형통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상황출동과 실종자 수색, 교통근무 등 각종 치안현장에서 많은 바 임무를 완수해 준 의무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상호 친목을 다져 활기찬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의무경찰 발전에 기여한 의

경어머니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축구, 계주 줄다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홍식 청장은 "그간의 스트레스는 훌훌 털어버리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체 의무경찰에게 1박 2일의 특별의박을 부여했다. 행사에 참가한 대원들은 "전북 경찰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남은 의무경찰 근무기간 동안 대원들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동심을 발휘하여 더 나은 부대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